

第142回國會

勞動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時 1988年6月21日(火)

場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1. 幹事選任의件

審査된案件

1. 委員長(金令培)·委員人事..... 1面
2. 幹事選任의件..... 2面
3. 幹事(張永喆·韓光玉·盧武鉉·金炳龍)人事..... 3面

(14時7分 開議)

○委員長 金令培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42回國會 臨時會 第1次 勞動委員會를 開議하겠읍니다.

먼저 立法調査官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읍니다.

○立法調査官 孫俊哲 立法調査官입니다.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1. 委員長(金令培)·委員人事

(14時8分)

○委員長 金令培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委員長으로서 간단히 人事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4月26日 實施한 第13代 國會議員總選舉에서 많은 난관을 극복하시고 當選의 榮譽을 차지하신 委員님 여러분에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國會本會議에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本 勞動委員會 委員長으로 選出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勞動委員會는 이번 國會法의 改正으로 新設된 委員會로서 과거 保健社會委員會에서 분리되어 勞動部 所管에 屬하는 議案과 請願을 審査하게 되었읍니다.

이번에 勞動委員會 委員으로 選任되신 여러 委員님들께서는 學識과 經驗을 겸비하시고 德望이 높으신 분들로서 이러한 훌륭한 분들과 함께 이 分野의 國政을 論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職責을 원만히 遂行하기 위해서 委員 여러분의 意見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對話와 妥協을 통해서 화기에애한 가운데 國政을 論議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읍니다.

우리 委員會의 원만한 運營을 위한 委員 여러분의 積極인 協調와 기탄없는 鞭撻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附言해 드릴 것은 이번에 勞動委員會가 新設委員會로 탄생이 되었읍니다.

우리가 잠깐 小會議室에서 私席에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렇게 새롭게 勞動委員會를 獨立시켰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意味와 새로운 價値觀을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간에 勞使紛糾가 暴增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社會的 또는 政治的 커다란 문제로 登場을 하고 있습니다. 今年들어서도 6月 20日 現在 勞使紛糾發生件數가 1,037件에 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결된 것이 858件 現在 進行中인 것이 179件에 達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委員들께서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國政에 임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昨年 統計에 의하면 產災發生件數가 14萬2,596名에 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391名이 事業場에서 일하다가 負傷을 당하는 數值입니다. 이 중에서 昨年の 總死亡者數가 1,761名 이것을 하루로 計算한다면 5名꼴이 職場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

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면한 勞動問題를 앞두고 여러 委員님들께서 國民으로부터 부여받은 所任은 막중합니다. 새로운 時代에 새로운 使命을 가지시고 앞으로 원만한 勞動委員會 運營에 協調해 주시고 本 不肖 이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있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會議자 第13代國會의 첫 委員會이기 때문에 委員 相互間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便宜上 오른쪽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金東仁委員으로부터 먼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仁委員 金東仁이올시다. 앞으로 委員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잘 善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梁慶子委員 民主正義黨所屬 梁慶子委員입니다.

○李康熙委員 民主正義黨의 李康熙입니다. 地域區는 仁川南區乙입니다.

○李潤子委員 民主正義黨의 李潤子입니다.

○李台燮委員 民主正義黨所屬 李台燮委員입니다.

존경하는 金令培委員長님과 그리고 경험많은 委員님들과 함께 勞動委員會에서 國政을 論하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江南乙區에서 當選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張永喆委員 民主正義黨 張永喆입니다. 星州·漆谷에서 當選됐습니다.

○李相洙委員 平和民主黨의 李相洙입니다.

우리 勞動委員會에는 평상시 勞動問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專門家되시는 선배님들이 많아서 마음 든든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제가 黨 代辯人을 맡아서 열심히 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指導와 鞭撻을 바랍니다.

○李海瓊委員 冠岳乙區에서 當選된 平和民主黨의 李海瓊委員입니다. 產業社會에 진입하면서 급증하는 勞使問題를 다루어야 할 중차대한 委員會에 제가 陪席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가슴 무겁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先輩委員 여러분에게 많이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韓光玉委員 平和民主黨所屬 서울冠岳甲區出身의 韓光玉입니다. 앞으로 當 委員會에 주어질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盧武鉉委員 統一民主黨의 盧武鉉입니다.

○李仁濟委員 統一民主黨의 李仁濟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金炳龍委員 光明市에서 나온 共和黨의 金炳龍입니다. 저는 初選委員으로서 또 議政에 처음 참여하는 입장에서 선배님들의 指導와 또 배우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나라 勞動問題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서로가 연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오늘 本 委員會所屬 委員중 孫柱煥委員 石準規委員 金鎔采委員 이 세 분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 세 분은 다음 會議때 참석을 하시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勞動委員會에 所屬되어 여러 委員님들의 立法活動을 보좌해 드릴 職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勞動委員會가 신설된 관계로 해서 事務處職制가 아직 改正되지 못하여 專門委員 등 一部職員이 미처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宋芳燮立法審議官입니다. 다음은 孫俊哲立法調查官입니다. 다음은 李秀用行政主事입니다. 다음은 勞動部에서 과견나와 立法調查官으로서 근무하게 될 文亨男書記官입니다.

(職員人事)

## 2. 幹事選任의件

(14時20分)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議事日程에 들어가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幹事選任의件을 上程합니다.

여러 委員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國會法 第48條의 規定에 의해서 委員會에 各 交涉團體別로 幹事 1人을 두며 幹事は 委員會에서 互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國會內에 4個의 交涉團體가 있습니다. 따라서 4個 交涉團體에서 한 분씩 選任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委員들께서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조금전 委員懇談會에서 各 交涉團體에서 推薦하신 대로 選任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異議가 없으시지요?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本 勞動委員會의 幹事로서 民主正義黨의 張永喆委員 平和民主黨의 韓光玉委員 統一民主黨의 盧武鉉委員 新民主共和黨의 金炳龍委員 이상 네 분을 幹事로 選任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張永喆委員 韓光玉委員 盧武鉉委員 金炳龍委員이 本 勞動委員會의 幹事로 選任된 것을 宣布합니다.

3. 幹事(張永喆·韓光玉·盧武鉉·金炳龍)人事 (14時22分)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選任된 네 분의 幹事委員들로부터 人事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張委員으로부터 해 주시지요.

○張永喆委員 저는 政治分野에 처음 入門하는 사람이고 신설된 勞動委員會에서 委員長님을 모시고 各黨의 委員들과 함께 원활한 常任委員會運營을 위해서 경험은 없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委員會가 잘 되어가기를 전부 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韓光玉委員 人事해 주십시오.

○韓光玉委員 생소한 分野의 當 委員會에서 제가 幹事의 任務를 맡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또 責任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國會가 과거에 運營되어온 常任委員會에 있어서 잘된 점은 더욱 장려가 되어야 되겠고 잘못된 점은 우리가 改革을 해서 바꾸어서 勞動政策이 當 委員會에서 거리낌없이 논의가 되고 그것이 또 國家發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先輩 同僚委員들의 指導鞭撻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先輩 同僚委員님들의 격려와 支持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盧武鉉委員 人事해 주십시오.

○盧武鉉委員 저는 좀 고집이 세고 말썽 부리기를 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 왔기 때문에 고집같은 것은 죽이고 되도록 말썽만 부리고 위치 잘 살펴서 잡음이 안 나도록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金炳龍委員 人事해 주십시오.

○金炳龍委員 우리 委員會가 發展하고 또 委員會의 妙를 살리는데 最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이것으로 오늘 議事日程을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散會할까 합니다.

韓光玉委員 말씀하시죠.

○韓光玉委員 첫번째 會議에서 먼저 우리 平和民主黨의 幹事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새로 新設된 勞動委員會이기 때문에 當 委員會에서도 活動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나오신 우리 立法調査官 또 立法審議官들도 역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勞動部에서 적어도 現況에 관한 資料는 와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전혀 와있지 않는데 대해서 그런 結果가 초래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召集되는 委員會가 現況聽取로 알고 있습니다. 現況聽取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勞動部에서 그동안에 해온 活動狀況과 計劃의 모든 分野를 우리가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事前에 그 資料를 받아보지 않으면 바로 그 場所에서 資料를 받아가지고는 現況業務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매우 至難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現況聽取日 적어도 3日 내지 4日前에는 우리 勞動委員會所屬 各 委員님들에게 꼭 배부가 되어서 事前에 現況聽取 資料를 檢討할 수 있도록 우리 立法調査官이나 審議官께서 協調를 해주고 또한 勞動部에 그러한 것을 注入을 시켜서 촉구를 해서 꼭 그렇게 施行되도록 委員長께 建議해 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委員會의 運營方

針에 있어서 과거에 보면 本會議의 運營方式을 줄인 小本會議式 소위 演說式으로 運營되어가지고 실지로 密度있는 深度있는 運營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先輩委員들께서도 알고 제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委員會運營에는 그와 같은 것을 改善하기 위해서 一問一答式으로 委員會를 運營해 줄 것을 委員長께 建議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지금 韓光玉委員님께서 말씀하신 要旨는 이렇습니다.

國會 常任委員會가 開議가 되면 政府가 提出해야 될 文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勞動部의 業務報告 또 委員이 要請하는 各種 資料 그 다음에 政府發議의 議案 또는 政府發議의 法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文書 書類가 委員이 會議에 나와서 자리에 앉았을때 그 書類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委員이 모든 資料나 議案을 심층있게 檢討할만한 時間餘裕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委員이 원만한 議事活動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趣旨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委員이 충분히 事전에 檢討할 수 있는 時間餘裕를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모든 報告書나 資料나 議案이나 法案이나 이런 것을 提出해 달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國會 常任委員會 運營相도 반드시 과거의 情性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은 是正이 되어야 된다 委員長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對政府質疑 이런 문제를 一問一答式으로 運營을 해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여러 委員님들이 그런 方向으로 同意하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實質적으로 어떠한 方法과 어떠한 節次로 그렇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4黨에서 選出되어 오신 幹事님들이 제시니만큼 技術的인 문제를 本委員長이 幹事님들과 議論해서 研究해서 원만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勞動部에서 모든 提出書類 이 문제는 本委員會의 議決로서 勞動部長官에게 公翰으로 通報해서 여러 委員님들의 뜻이 貫徹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李台燮委員 議決까지 할것 없지요. 필요한 資料가 뭔지도 모르고...

○委員長 金令培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당장에 本會議가 끝나면 常任委員會가 열릴때에 새로 勞動部의 業務報告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業務報告書를 미리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梁慶子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慶子委員 지난 例를 보면 제가 속해 있던 委員會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事전에 資料가 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便宜를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 李台燮委員님께서 말씀했듯이 반드시 議決事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建議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다만 우리 韓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一問一答式 質問에 대해서는 前例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議決事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意見을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令培 一問一答式 運營問題는 委員長이 幹事와 議論해서 處理하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政府로부터 提出되어야 될 모든 書類問題는 委員이 미리 檢討할 수 있는 時間餘裕를 갖도록 事전에 提出해 달라 하는 것을 委員長 名義로 長官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오늘 會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36分 散會)

○出席委員

金 令 培	金 東 仁	梁 慶 子
李 康 熙	李 潤 子	李 台 燮
張 永 喆	李 相 洙	李 海 瓊
韓 光 玉	盧 武 鉉	李 仁 濟
金 炳 龍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立法審議官 宋 芳 燮

【報告事項】

○常任委員選任

勞動委員會

民主正義黨

金 東 仁 孫 柱 煥 梁 慶 子

李 康 熙	李 潤 子	李 台 燮
張 永 喆		
平和民主黨		
金 令 培	李 相 洙	李 海 瓚
韓 光 玉		
統一民主黨		
盧 武 鉉	石 準 規	李 仁 濟
新民主共和黨		
金 炳 龍	金 鎔 采	

(6月20日字)